

신속히 항구복구 대비로 전환

익산시, 집중호우 긴급복구·피해현황 집계 마무리... 개선복구 1900억원 지원 건의

익산시가 집중호우피해의 긴급 복구를 마무리하고 신속히 항구복구 대비 태세로 전환한다.

시는 지난달 발생했던 집중호우 긴급복구와 피해현황 집계를 마무리하고 빠른 피해지원금 지급과 항구복구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가 집중호우피해의 긴급 복구를 마무리하고 신속히 항구복구 대비 태세로 전환한다. (사진=익산시청 제공)

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긴급복구가 모두 마무리됐으며 피해규모는 총 2만6천567건, 25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피해 접수 결과 공공시설 47건 88억원, 사유시설 2만6천520건 162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지난 사전 조사시 파악됐던 피해액 153억보다 약 100억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에서는 피해접수 건에 따른 조사 및 현지 실사를 완료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비 및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행안부의 복구계획이 수립되는 다음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확정된 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이 국비 지원 절차를 거쳐 통보되는 대로 시는 추경 성립 전 예산 및 예비비 편성 등을 검토하여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피해시설 항구복구를 위해 약 1,900억원의 개선복구비가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파악, 행정안전부에 복구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이번 호우에 유실됐던 산복천 하천

정비,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됐던 난포교 재가설, 배수펌프장 신설 등 피해시설의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서 재해 예방을 위한 전면적 개선복구 추진을 위함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에서는 관련 부처와 함께 현지 실사를 마친 상태로 추후 내부심의 등 절차를 거쳐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등 피해 주민 간접 지원과 관련해 8개 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호우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내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조속한 긴급 복구작업으로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도우준 1만7천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대표해 군부대, 자원봉사단체, 각 기관 등에

감사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완수 기획안전국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원봉사자와 군장병, 공무원 등 피해복구를 위해 각계 각층에서 큰 힘을 보태주신 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호우로 인한 피해를 딛고 더 안전한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특별재난지역에 우선 선포함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세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감면 등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종 항목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가 제6호 태풍 '카눈' 복상에 따라 재난 우려지역 사전점검 등 피해 최소화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태풍 대비 피해 최소화 총력

군산시, 재난 우려지역 사전점검·재난안전대책본부 조기 가동

군산시가 제6호 태풍 '카눈' 복상에 따라 재난 우려지역 사전점검 등 피해 최소화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김임준 군산시장 재난 우려지역 사전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관·과·소 전 직원은 주요 교차로와 주요 교차로 빗물받이 점검, 관내 간판, 현수막, 돌출시설물, 옥상 시설물, 가건물,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점검을 실시했다.

또, 이날 오후 읍·면·동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태풍 내습 전 긴급점검 실시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 우려 취약지역에 대한 전수점검 등 위

험요인을 파악하고 신속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시는 태풍 특보 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해 대응 시간을 확보하고 유사시 관내 소방·경찰·군인력을 활용한 지원체계 마련 및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이·통장 등과 함께 사전예찰 및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지난 폭우 당시 사전예찰을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한 것처럼 관·과·소 직원들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 주기 바란다"면서 "사전예찰로 이번 태풍에도 군산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상반기 이자수입 65억원 달성

군산시는 9일 공공자금의 체계적 운용을 통해 올해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 65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49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시는 전년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유동 자금을 확보하고, 확보된 자금을 공공예금이 아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정기에금에 예치하는 반면, 세입·세출 규모 및 흐름을 파악해 여유 자금을 최대한으로 확보했다. 지속적인 예금금리 인

상을 반영하기 위해 단기(6개월 이하) 정기예금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해 이러한 성과를 얻었다.

특히, 경기 불황에 따른 세입 감소와 복지서비스 확대 등 세출 규모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확보된 자금을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자금 관리·운용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6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강화

군산시는 이달부터 인도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시민 교통안전을 위해 인도를 포함한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승강장,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개 장소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관련 규정에 대한 계도를 진행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 통학로,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 승강장을 비롯해 새롭게 단속 규정 또한 더 강화되는 쪽으로 변경됐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 매출 20억원 달성

전년 동기 대비 34.6% 증가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가 원예농산물 매출 20억원을 달성하는 등 농가 소득 창출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마을전자상거래 입점농가의 증가로 전년 동기 매출액 15억 3천만원 대비 34.6% 증가한 20억 6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원예농산물 판매 목표액인 40억원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마을전자상거래 입점은 농가의 일소문을 타고 호응을 얻어 작년 904농가에서 올해 1,078농가로 증가했다.

시는 제값 받는 농산물 판매와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기획전을 열어 소비자와 농민 모두에게 이롭게 진행해왔

다. 지난 4월 토마토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마을전자상거래 판매기획전을 추진하여 약 3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며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의 농산물 판매를 위해 지난 달 24일부터 판매기획전을 추진하고 있다.

멜론의 경우 익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문 판매 등을 추진하여 총 200박스 이상의 멜론을 판매하였으며, 양파, 호박, 멜론 등 약 8천만원 이상 판매고를 올렸다.

시는 시름에 잠긴 수해 농가의 경영을 돕고, 치솟는 농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농산물

판매 기획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 농가들이 판로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지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입점 농가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마을전자상거래에 입점을 위해 약 300여 농가를 대상으로 타깃 홍보를 강화하고 직접 전시장 방문에 소농·고령농을 직접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층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익산시가 라는 슬로건처럼 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농·영세농·고령농이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고백 익산 시티투어 코레일 상품 출시

익산시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북본부는 '고백(Go, Back) 익산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코레일 관광 상품으로 런칭했다.

이번 코레일 관광 상품은 종교순례와 전통시장(중앙시장)을 연계해 '한번 가면(Go), 다시 오고 싶은(Back) 익산'이라는 의미를 담아 체류형 관광과 재방문 관광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췄다.

고백 익산 시티투어는 토요일 9시에 익산역에서 출발해 일불교 성지, 아가페정원, 나비위성당, 두동교회, 미륵사지, 중앙시장을 방문한다.

원불교 성지 방문 시 성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비위성당에서 종상이 제공되며 중앙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쿠폰이 지급된다.

예약시스템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문화관광산업과(063-859-5800, 5810) 전화예약과 함께 코레일톡(모바일)과 랫츠코레일(홈페이지)을 통한 예약 채널을 추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군산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40호에 대한 가격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으로 완료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를 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주택은 2023년도 1월부터 5월말까지 개별주택을 신·증축, 용도변경하거나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은 시청 세무과(454-2410) 및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실시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9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